



‘입는 일’도 수행이다

철학을 맞아 경동시장에 새벽 장을 보러 갔을 때다. 장 보러 나온 스님들의 옷차림이 제각각이다. 두루마기까지 찢겨 입은 스님들이 있는가하면 속적삼을 입은 스님(색깔도 가지각색이다). 동방아스님, 티셔츠에 조끼 스님, 잠바 스님에 이르러까지. 삭발을 하고 아래는 회색바지를 입었으니 스님인 것은 분명한데, 그야말로 천태 만상이다.

큰스님 다비장에 가도 마찬가지다. 두루마기 차림의 스님서부터 장삼만 입은 스님, 반가사·대가사, 각각각색의 가사 색으로 ‘승복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해제하고 만행 나온 스님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누더기 두루마기로 거리를 훑고 다니는 분이 있는가하면 조끼와 등산화



터 시작해야 된다. 거룩한 모습의 스님이 진리를 말하고 참된 삶을 실천한다면 재가자 모두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스님들의 의식(意識)이 바뀌어야 한다. 수행자는 세상을 도피해서 자기만의 만족을 찾으려고 출가로 한 것 몇 안 될 것이다. 이 ‘본소의’ 정신 돌아가 ‘법답게’ 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날 스님들의 의제(依制)를 거론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일상복·의식복 모두 제각각

법(法衣)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울장>을 통해 보면 교단이 커짐에 따라 옷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승단 출범 후 초기에는 버려진 천으로 만든 분소의(糞掃衣)를 입었으나 이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재가자로부터 가사를 공양 받게 되었고, 부처님은 아난존자에게 명하여 네모나게 정리된 논밭의 모양을 본떠 가사를 만들게 했다. <울장>에 나와 있는 옷에 관한 정신은 욕심을 줄이는 것(欲知恥)과 출가자의 위의를 지키는 것(攝持威儀)

다. 출가정신을 바르게 알고 불법을 지켜가기 위하여 청정한 모습과 어떠한 위의를 가꾸도록 종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

다음은 제도적으로 의식복(儀式服)과 일상복, 외출복을 제정하여 통제·관리하는 문제이다. 법계를 의제에 표시해서 번거로움을 더하지는 이야기가 아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옷을 법답게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어지러운 복식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승가의 위엄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세상이 싫어하고 얼굴 찌푸리는 일은 전법포교에 손상됨을 스님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본각 스님(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조계종 불교문화산업센터

불교문화센터 연내 착공

태고종 불교문화전수회관

서초동에 5천평규모 지상 4층·지하 3층 유 무형 문화 상품화·체험 교육 시설도

이창동 문화관광부장은 1월 29일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48년 신년하례법회’에서 축하사를 하며 “올해 착공될 ‘전통불교 문화산업지원센터’ ‘한국불교전통문화전수회관’ 건립사업에도 마음 깊이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대 키워드인 문화를 이끌어 갈 두 곳의 대규모 불교문화 공간의 건립이 본격화돼 교계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불교의 양대 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은 전통불교문화와 문화콘텐츠를 소재로 한 전통불

교문화산업지원센터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수회관 건립 계획을 내놓았다.

두 곳의 기능은 유·무형으로 계승되어 온 전통 불교문화와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 종합산’ 불교문화산업센터와 불교문화전수회관이 문을 열 경우 간화선과 영산재, 단청 등 불교에 국한되어 있던 불교문화는 ‘업그레이드된 대중문화로’ 세계속의 한국문화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92-15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건평 5천여평 규모로 불교문화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불사를 연내에 시작한다. 200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224억원. 이 가운데 122억원은 국고보조를 받고 나머지 122억원은 조계종이 부담한다.

불교문화산업센터에는 불교 회화 및 공예품 전시·판매실과 불교예술품 체험관, 사찰음식문화 교실 등 체험·교육 시설과 불교교조·음악 전시실, 전통불교 문화상품 판매소 등 전시·판매 시설과 공연시설, 벤처 보육시설, 상품화공용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간화선, 템플 스테이, 불교의식, 불화 등을 소재로 한 연구

법륜사에 1천6백평 규모, 6월 첫삽 영산재 등 전승·복원·연구 등 종합공간

와 교육, 자료축적, 원형 복원 등 다양한 작업이 이뤄진다. 태고종도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 조계종 불교문화산업센터에 버금가는 회관을 건립한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층 연건평 1천6백여평이며, 명칭은 불교문화전수회관. 불교문화전수회관이라는 이름에는 불교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후대에 전승하겠다는 태고종의 의지가 담겨 있다. 중앙종무기관, 법당, 국제회의실 외에 단청·명화 상설전시관, 공연장, 전통차 체험실 등을 마련한 것

도 ‘태고종=전통종단’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전수회관은 종단이 보유하고 있는 영산재(무형문화재 50호), 단청·불화(무형문화재 48호), 전통차 등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유·무형의 불교문화 전승·발전시키기 위한 복원·연구도 이뤄진다.

태고종은 국고보조비 60억원을 포함해 총 120억원을 들여 2005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6월 불사를 시작한다.

박병영·남동우 기자

지적수준 향상, 신행에 영향 안취

조계종 포교원 기본교육 효과 분석 “지식 위주 교육 수행 못 이끌어”

조계종이 신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교육이 기초 교리 등 지적 이해에는 도움이 되나 봉사, 신행 등 실천수준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지난해 연중사업으로 신도기본교육을 받기 전과 후의 변화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결과는 임의표본 방식으로 추출한 50여 개 사찰에서 불교교양대학 등을 통해 기본교육을 받은 1,077명의 설문을 분석한 것이다.

기본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해 그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과 기본교육을 받고 난 후 불교교리의 이해(7.08), 법회 의식의 이해(6.65)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반면 봉사활동의 적극성(5.93), 신도회 및 신행활동의 참여도(6.00) 등에서는 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기본교육을 받고 난 후 사찰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평균 3.46~6.09) 이것이 열발 간경 참선 등의 정기적인 신행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보면 ‘법회 등에서의 홍보를 통해’란 응답자가 전체의 30.4%로 나타나 해당 사항 주지 스님의 홍보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교육임을 알고 자발적으로’ (22.1%)란 응답도 비교적 높았지만 현수막(8.9%)이나 사보(6.8%)를 통한 사찰 외부의 홍보

신도기본교육 전과 후의 태도 변화 (10점 만점)

	교육 전	교육 후
생활 변화와 자긍심	3.92	6.84
정기적인 법회 참여	3.46	6.09
법회 의식의 이해	3.46	6.65
기초교리 이해(부처님 생애 등)	3.46	7.08
재직사찰 갖기 및 신도등록 필요성 인식	3.54	6.83
정기적인 신행활동	3.11	6.00
신도회 및 불교활동 참여	3.03	5.94
타인에게 불교를 말할 수 있는 자신감	3.08	6.35
봉사활동의 적극성	3.35	5.93
신도전문교육기관 입학 희망	3.38	6.59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전 신행활동 참여도는 3.11이었는데 교육 후 평균치는 2.89 포인트 늘어난 6.00으로, 다른 조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리에 대한 이해 등 지적인 이해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행활동과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등 이타행의 실천이 견비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도기본교육에 참여한 동기를

효과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도기본교육 참가자의 신행이력은 평균 9.54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8.84년)보다 여자(9.75년)의 신행이력이 약간 길었다. 4년 미만의 초심자들이 31.3%로 가장 많았는데 6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층에 상관없이 4년 미만의 신행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다양한 연령층의 새 신도가 계속해서 입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형진 기자

옷 입는 것은 통일해야 하지만 법계에 따라 옷에 뭔가 표시하는 것은...

대부분의 조계종 스님들은 승가복식 규정과 작용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계에 따른 의제 구분에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법계 위원회 산하 의제실무연구회(의장 종진)와 교육원 불학연구소

라는 응답도 33.8%에 달했다. 그러나 법계에 따라 의제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6%만이 공감한다고 밝혀 반대의견(44.4%)도 상당수 있었다.

반대 이유는 위계에 따른 수직적 차별의식, 일종의 위화감 조성으로 승가 화합에 결림 등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계에 따른 의제 구분을 위해 가사에 탈·부착하는 휘장을

통일은 ‘필요’ 차등은 ‘글썄’

조계종 교육원 ‘승가복식 통일...’ 설문결과

(소장 법선)가 ‘본·말사 주지 연수 대상자 및 선원·강원대 중’ 1,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승가복식 통일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10명 중 8명(80.5%)의 스님은 승가복식 전반에 걸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46.6%)하거나 적극 공감한다(33.9%)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의 46.7%가 ‘칭정하고 검소한 승가복식의 정신이 회복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너무 문란해 통일성이 없기 때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68.6%의 응답자가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31.4%였다. 조계종 교유의 승가복식 제정에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 63.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 조계종 상징 마크나 표식을 복식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 스님도 63.6%에 그쳤다.

한편, 응답자의 79.2%는 종단에서 가사를 제작하여 법계 품서시 때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권형진 기자

각 종단 모든 공고 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상표 등록

미시우터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긴급 서비스 기술 지원 팀 011-9996-8872

사용량 (kWh)	요금 (원)	사용량 (kWh)	요금 (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1,720
110	7,690	320	43,740
120	8,600	330	45,850
130	9,510	340	48,000
140	10,420	350	50,250
150	11,330	360	52,600
160	12,240	370	55,050
170	13,150	380	57,600
180	14,060	390	60,250
190	14,970	400	63,000
200	15,880	410	65,850
210	16,790	420	68,800
220	17,700	430	71,850
230	18,610	440	75,000
240	19,520	450	78,250
250	20,430	460	81,600

전자전구 사용 전력 1/25배 절약 일반전구 사용 전력

전화 031-791-8871 792-8867~8